

매튜 S. 하몬 박사,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제5장 :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십시오 빌립보서 1:27-30

BiblicaleLearning.org, 테드 힐데브란트 저

매튜 S. 하몬 박사가 빌립보서를 강해하는 영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번 영상은 다섯 번째 강의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30절)입니다.

빌립보서 연구 다섯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복음의 진행 과정에 대해 간략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6절까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미래 계획과 소망, 그리고 복음이 그가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사역을 계속할지 아니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할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삶의 환경을 통해 복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빌립보서 서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127장 이하로 시선을 돌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살펴볼 특정 구절에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서 본문 전체에 대한 몇 가지 관찰 사항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본문은 1장 27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이 4장 3절 전체에 걸쳐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이는 도표에서 저는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그리고 3장 17절부터 4장 3절까지 나타나는 몇 가지 유사한 주제들을 강조 표시했습니다. 이 주제들은 이 부분을 하나의 일관된 문학적 단위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부분 모두에서 시민권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27장부터 30장까지를 살펴보면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과 3장 20절에서도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두 굳건히 서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에서는 반대자들에게 위협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 1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27절에서는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장 3절에서는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여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써 온 두 여성 회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28절에서 복음의 대적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장 28절에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서는 우리가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에 대해 이야기하고, 4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 내가 신티케에게 간청하노라 .” 라고 말합니다 .

영어 번역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격려와 간청 또는 격려라는 단어는 같은 그리스어 어족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완성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자신의 기쁨과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유사점들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일관된 문학적 단위로 이해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를 '포함', '괄호', '봉투'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는 작가가 편지의 여러 부분을 하나의 일관된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편지 본문은 1장 27절에서 시작하여 4장 3절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병행 구절들 외에도, 저는 이 편지 본문에서 교차대구 구조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단정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대구 구조는 서로 일치하는 병행 구절들이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A, B, 그리고 가운데에 C가 있고, 그 옆에는 B 프라임과 A 프라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병렬적인 사고방식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별개로, 저는 이것이 문자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나눔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에는 제가 '모범'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 즉 이 현실의 궁극적인 구현체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편지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촉구했는데, 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공동체 생활에서 비롯된 기쁨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리스도 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삶 , 또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과 유사한 삶의 예를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는 디모데, 에바프로디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일부 유사점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소위 '그리스도의 찬가'가 빌립보서 전체의 문학적, 신학적 중심이라는 점 입니다 .

제가 즐겨 쓰는 또 다른 비유는 항아리에 돌을 던졌을 때, 돌이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는 지점에서 가장 큰 물보라가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돌이 던져진 지점 주변으로 파문이 퍼져나가죠. 저는 그리스도 찬송가가 마치 글자의 중심에 떨어진 돌멩이와 같아서, 그 파문이 적어도 글자 본문 전체, 어쩌면 글자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편지 전체의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에 대해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는 동안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여러분을 직접 만나든지, 만나지 못하든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건히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힘쓰고, 어떤 대적에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대적들에게는 그들의 멸망의 분명한 표징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은 그분을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싸움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도 내가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는 명령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 명령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라고 요약해 놓았으니, 잘 들어보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곧바로 “이 시민권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 시민권이란 무엇일까?”, “이 왕국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라고 궁금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ESV(영어 성경)에서는 첫 구절을 “오직 너희 생활방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서신 전체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명령형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처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오직” 또는 “사람이 해야 한다”라는 단어로 강조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이것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다른 모든 것들은 그 개념에서 파생된 것이고, 그 개념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권 관련 표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특정한 그리스어 동사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은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종종 특정한 방식으로 걷거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각각 다른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는 단순히 이런 식으로 살고, 이런 식으로 걷는다는 막연한 느낌을 표현할 때는 다양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특정한 동사를 사용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영어 단어 'politics'가 'politics'라는 단어 계열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도시, 조직, 혹은 왕국과 같은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시민, 어디의 시민인가? 어떤 사람들은 "아, 바울은 빌립보 시민으로서 살라는 뜻이구나. 복음에 합당하게 빌립보 시민으로서 살라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은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로마 시대에는 매우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혜택과 특권을 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의 실제 인구 중 시민권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신도들 대부분은 시민권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바울이 빌립보 시민으로서 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증거는 편지 뒷부분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특히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따른 특정한 혜택과 특권을 누리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1장에서 빌립보 교회와 그 기원에 대해 소개할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다음 날 로마 관리들이 와서 그들을 석방하려 하자 바울과 실라는 "잠깐만요, 당신들은 우리를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은 로마 관리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들은 바울과 실라가 기소되기 전에 당했던 것처럼 구타를 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로마 관리들은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렀고, 로마 시민들을 학대한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하네. 우리라면 당연히 '잠깐만, 잠깐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나 로마 시민이야.'라고 말하고 싶었을 텐데."

당신은 내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우리가 매 맞고 학대당하기 전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을까요? 비록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합리적인 결론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본보기를 보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바울처럼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 물론이죠, 바울 씨, 당신 말은 쉽죠.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면 매를 맞지 않아도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로마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기 쉽겠죠.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쉽겠죠. 하지만 그게 저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저는 바울이 비록 법적으로는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려 했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빌립보서로 돌아와서,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지고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이해한다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혜택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은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그것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그 점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그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할 때, 관련된 그리스어 명사인 폴리 테우마(politeuma)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매우 의도적인 용법이며, 분명히 하늘 시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바울이 1장 27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1세기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최우선적인 충성은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며, 진정한 시민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념은 우리가 속해 있을지도 모르는 특정 국가에 대한 다른 모든 세속적인 충성심에 대한 생각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비유를 들자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통치 문서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들을 생각해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골로새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과 같은 구절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메시지, 즉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우리가 우리 삶을 평가하는 척도, 기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복음의 진리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을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지만, 특히 2장 5-11절에 나오는 소위 '그리스도 찬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부르는 자들은 그분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타락한 인간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긴장감의 일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지만, 육체적으로는 타락한 인간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과 충돌하는 긴장감을 경험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순종은 다른 사람들의 존재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1장 27절에서 이 점을 슬쩍 언급했죠.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마음으로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 권위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권위에 순종하려는 아주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분명한 예는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일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제한 속도가 시속 60마일 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시속 70마일이나 75마일로 못 달릴 이유가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는 탁 트인 것 같아. 위험도 없어 보이는데. 뭐가 문제지? 그런데 갑자기 모퉁이를 돌아마자 경찰관이 나타났어.

그는 중앙분리대 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죠? 바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왜냐하면 '아, 안 돼, 내가 과속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그 경찰관이 마음만 먹고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내가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나를 세우고 딱지를 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변에 법을 집행할 권위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없으니, 원한다면 제한 속도를 조금 넘어서 달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좀 우스꽝스러운 비유나 설명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아이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요? 아이들이 놀이방에서 놀다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행동이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눈에 띄지 않으니 팬츠를 거라고 생각하죠.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그들이 영적으로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듣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저는 그것이 반대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팬이시고 미식축구를 보신다면, 공격 라인을 생각해 보세요. ‘굳건히 버티다’라는 말은 그들이 서로 위치를 굳건히 지켜서 뒤에 있는 쿼터백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에 맞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굳건히 버티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는 이 표현을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가 ‘굳건히 서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어떤 영역에 서 있는지를 나타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다시 본문 1장 27절을 보면, 마지막에 ‘너희는 한 영 안에 굳건히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번역본을 보시면 대부분 소문자 s로 ‘spirit’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여기서 말하는 ‘spirit’이 인간의 영이나 공통된 태도, 혹은 유사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단순히 인간의 영이나 어떤 공통된 가치관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조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하나로 묶어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요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반대에 맞서 하나 되어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마음 한뜻으로 굳건히 서는 것에서 나아가,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란히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한다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 표현은 함께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빌립보서 후반부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함께 수고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곳이 빌립보서 1장과 4장 3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 표현을 사용했고, 4장 3절에서도 다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드러나는 요점은 긴밀한 공동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서구 사고방식과 생활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강인한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에는 마치 “나랑 성경,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해”라고 말하는 듯한 버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관점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순히 개인으로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뿐 아니라 다른 믿는 자들과 하나 되도록 한 몸 안에 두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힘쓰는 이 이상을 진정으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동체의 형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서로가 필요합니다.

신학생 시절,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강해를 하시던 때가 기억납니다. 목사님은 강해 시리즈 전체에 “천국에 이르도록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을 붙이셨는데, 저는 그 제목이 참 기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기업 차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복음의 진리를 일깨워주는 다른 믿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 삶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는 복음 선포가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저는 바울이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힘쓰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믿음’이라는 표현 자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읽히고, 묵상되고, 연구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삶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되새겨야 하며, 그것이 우리 삶에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28절에서 그는 인생의 갈림길로 나아갑니다. 그는 여기서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과 반대이고, 다른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28절에서 대적들의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교도, 즉 거짓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압력, 사회적 압력,

경제적 압력, 심지어 정치적 압력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로마 당국 앞에 끌려갔을 때, 고발자들이 "이 유대인들은 우리 로마인들이 믿고 행할 수 있는 것과 상반되는 사상을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빌립보 성에서도 그러한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표현이 전투에서 말이 놀라 날뛰는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과 유사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전투에서 싸우는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나거나 무언가가 일어나 놀라면 말들은 예측할 수 없이 행동하고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반대에 직면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야말로 복음의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대에 직면하여 굳건히 서 있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실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29절과 30절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시 1장 2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허락된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라. 내가 겪은 고난을 너희도 보았고 지금도 듣고 있으니, 너희도 그 고난에 참여하라."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ESV(영어 성경)에서 "허락된"으로 번역한 이 단어가 은혜롭게 주어진, 즉 은혜의 선물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력으로 얻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받은 두 가지 선물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이것을 첫 번째 선물로 언급합니다. 우리는 '멋지다, 나는 그 선물을 좋아해'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 선물을 받는 데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주님, 제게 그 선물을 주세요. 그런데 그분은 두 번째 선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에 조금 덜 흥분하는 것 같네요. 그는 고통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선물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보통 그런 선물을 원하지 않잖아요.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에 정말 마음에 드는 선물을 하나 받아서 열어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그래, 바로 이거야!'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음 선물을 열어보면, 어쩌면 당신이 정말로 원하지 않는 스웨터 같은 게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색깔도 마음에 들지 않고요.

잘 어울리는 것 같진 않네요 . 그래서 '아, 그래도 괜찮네. 고마워.' 라고 생각하게 되죠.

고통 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바로 그거예요 . 고통을 선물로 여기는 거죠.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결국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쉽게 정신이 팔리곤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통이 우리 삶에 닥쳐오면, 비로소 우리는 그 본질을 파악하고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이는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된 현상입니다. 말기 진단을 받으면 갑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나가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기 진단을 받고 실제로 병이 호전된 환자들은 위기가 지나 가면 결국 진단 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 그리고 갑자기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해' 라는 날카로운 집중력이 사라지죠. 고통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 그리고 두 번째로, 고통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고난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그런 점에서 바울이 고난을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이 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쉬워진다는 말은 아니예요. 갑자기 '아, 내가 이걸 겪는 건 별일 아니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요, 여전히 힘든 일이에요.

여전히 힘든 일이죠. 그 상황이 어떤 것이었든 간에 여전히 고통을 느끼잖아요. 당연하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과 사물에 집중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선물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30절에서 우리가 보는 큰 그림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본보기에 따라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절 의 핵심 사상입니다 .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는 우리 가 그렇게 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복음에 대한 반대에 맞서려면 영적으로 함께 굳건히 서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반대에 맞서려면 영적으로 함께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선다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은 복음의 풍성함에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그의 백성에게 믿음과 고난을 모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으로 인한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소유로 연합됩니다.

자, 그럼 이 구절에서 몇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봅시다. 이야기할 거리가 많지만 , 그중 네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하는 척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둘째,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믿는다는 이성적인 차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시작점이긴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뿌리내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우리는 영적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절망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함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때때로 저는 우리가 고통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마련해 주신 공동체에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다른 신자들과의 공동체 생활을 의도적으로 추구하십시오.

이러한 공동체 생활의 구체적인 형태는 각자의 삶의 환경과 교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혼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 생활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는 것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도 포함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듯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빌립보서 본문의 서두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매튜 S. 하몬 박사가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해는 다섯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1장 27-30절 말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입니다.